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친환경 운송수단 필요”

장애인 등 보행약자 위한 친환경차 설치

김영미 동신대 교수, 광주관광포럼서 활성화 방안 제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에 장애인, 외국인 등 특수목적 관광객들을 위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트램, 전기자전거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중국 장가계 케이블카, 제주 한라산 모노레일, 대만 타이루커 협곡, 홍콩 피크 트램, 제주 수월봉 전기자전거 등 세계 각국의 지질공원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송수단이 설치돼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는 광주시 주최, 광주시관광협회 주관으로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8회 광주문화관광포럼'에 참석, '국제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지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무등산의 자랑인 주상절리대 감상에 무장애 관광 시대를 위해 보행 약자의 이용 편의 제고, 젊은 층 등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반 논란이 있는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현재 군사도로와 탐방로를 보수해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등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카의 경우 자연훼손 면적이 작고 교량이나 도로 건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지만, 자연훼손 발생, 무등산 주상절리 훼손 우려 등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이점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당 건물을 방문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방공포대 일대를 원형으로 돌려놓는 것은 어렵더라도 식생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를 설치하고 인근 상가 이전 지역에 관광복합지구 형성을 제안했다.

'광주방문객을 위한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길영 광주관광협회 수석부회장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은 광주 관광을 살리는 대안"이라며 무엇보다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광주 관광산업을 살리는 대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의 자유로운 접근과 탐방에 있다"며 "4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예상돼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장봉재 친환경 차량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 제안했다.

오전과 오후 예약제를 이용한 제한적 이용을 하면 주상절리대를 연계한 세계적인 무등산권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지역경제·관광활성화·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발표문에서 광주가 전국 여행 참가자 수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에 해당하는 등 관광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광주 관광산업을 살리는 대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의 자유로운 접근과 탐방에 있다"며 "4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예상돼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장봉재 친환경 차량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에 청소년해양교육원 들어선다

180억 들여 박람회장 부지 수영장·해양탐험관 등 건립

여수에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4710㎡ 부지에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연면적 623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교육원 1층에는 20m짜리 5개 레인의 수영장과 다이빙풀, 식당,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

하게 된다.

해양탐험관에서는 여수밤바다관, 해양 교육실, 선박 항해실을 들어서고, 자연재난관에는 4D 하프스클링영상관과 지진대피체험 교육실을 마련해 재난대비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수영, 다이빙체험, 스쿠버다이빙, 응급처치법 등의 체험과 교육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윈드서핑, 당기요트 등 해양레포츠 VR가상현실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3층과 4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속소와 다목적대강당, 교육실 3개가 마련된다.

교육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함께 박람회장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래 해양리더를 양성하는 해양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미 밤하늘에 천둥 번개쇼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해안의 밤하늘에 번개가 잇따라 치고 있다. 이날 밤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샌타바버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불과 5분 사이에 1500회에 가까운 천둥-번개가 치는 이례적 기상 현상이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무분별 사용 방지 특허 등록 신청

3가지 문구 업무표장 등록

광주시가 노사민정 대타협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신청했다.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 문구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이들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의 업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달 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로, 등록자가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서울시의 '하이서울', 경북 영주시의 '선비의 고장' 등이 대표적인 업무표장이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의 문구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업무표장 등록을 나섰다. 시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통해 광주 완성차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 '광주형 일자리' 상표가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

정한 현대제과식품 광주공장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도 상표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특허청 심사가 8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업무표장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산형이나 거제형 등의 표현은 알마든지 가능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타인이 이를 선점할 수도 있어 서둘러 특허 등록을 나섰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도로 폭·대지면적 기준 제한

광주시가 가로경관 개선 및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도심 내 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각 도로 폭,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시의 '광주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도로 사선제한 폐지 이후 도로나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안을 확정했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km²로,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길이, 높이계수를 반영해 건축물의 기준 높이를 정하게 된다. 단, 공개공지 확보,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청된 건축 인·허가 및 심의의견에 대해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획·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침단 초고층 주상복합 지역경제 해악”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이 지난 6일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침단지구 롯데쇼핑몰에 대한 광산구의 주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롯데자산개발이 침단지구의 (구)롯데슈퍼 자리에 49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건축허가를 광산구에 신청했다"며 "현재 광주시와 지구단위 결정을 협의중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3개동 건물로 영화관, 대형슈퍼, 아울렛이 망라된 롯데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산구

와 북구 일부 상권까지 잠식, 중소업체들과 골목상권이 초도화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8월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대규모 쇼핑센터 건축계획을 신청했을 당시 광산구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 뒤 2014년 3월 건축허가 결정을 반려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광산구는 5년 전처럼 주체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경제와 주민의 생존권에 49층 주상복합건축물은 해악이 될 뿐"이라며 "매력, 활력, 품격있는 구정 실현을 위해서는 광산구가 철학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